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과 우리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평양자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중등교육 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중등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건설을 시원하게 정말 잘했다고, 평양중등학원건설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원아들의 밝고 창창한 글읽는 소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질 날을 은근히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평양시민들이 내놓고 자랑할만한 큰일을 또 하나 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교사, 야외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중등학원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멋있다고, 마음에 꼭 든다고 거듭 거듭 되뇌이시면서 원아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또 하나 일떠섬으로써 우리 당의 교육중시정책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과시하게 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최근 몇 해사이에 평양시와 각 도들에 육아원, 애

육원,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 교육중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중등학원과 같은 학원은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원아들에게 멋쟁이학원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을 세상에 부럽없이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을 또 하나 풀게 되였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중등학원이 훌륭히 건설된것만큼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고 원아들을 하루빨리 이사시키라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새 집에 이사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릴 때 꼭 다시 찾아와 그들의 글읽는 모습도 보고 체육경기도 보아주시겠다고, 그날 원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우리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평양자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1년 동안에 회한하게 천지개벽되였다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구내에 새로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보시고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종합조종실, 실내자라양식장, 알깨우기실, 지열기계실, 미생물배양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평양자라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된것만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라생산계획을 해마다 어김없이 수행하는것과 함께 자라마리수를 계속 늘일데 대한 문제, 우량품종의 자라종자들을 확보하고 육종해내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사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방역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자라공장을 돌아보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자라를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고, 정말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00일전투의 철야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이 땅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찬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속에 평양자라공장이 훌륭히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개건공사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 헌신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친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자라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안고 더 많은 자라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 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최고의 마음이 뜨거운 7월의 날과 날이 흐르고있다.

해방후부터 근 반세기의 세월 오로지 나라의 분열을 끝장내서 조국통일성업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민족의 가슴에 강렬히 차호르는 7월이다.

조국통일은 아버지수령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었다.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것이 그이께서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구현하여오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이다.

그이께서는 회고록 《세기 와 더불어》에서 3천만가운데 조국해방이 곧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을 낳고 그 분단과 분열이 근 반세기의 대국난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것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쓰시었다.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시였기에 겨레가 당하는 분열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이시다.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조

7월에 새겨보는 불멸의 업적

성될 때마다 민족자주정신으로부터 출발한 대범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여 난국을 타개하시였으며 열렬한 민족애와 고결한 덕망으로 온 겨레를 품에 안아주시고 통일에국의 길로 이끌어주시었다.

미국의 부추김일에 남조선의 매국배족세력이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내들고있던 때에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마련하시어 분렬음모에 타격을 가하시고 사상과 정견, 신앙을 초월한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전통을 마련해주신분은 수령님이시었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통일을 바라는 북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추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주체39(1950)년 6월 19일에는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적인 립법기관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었다.

전후 외세와 그와 결탁한 반통일세력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고있을 때

열한 북남협상제안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실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였고 반통일세력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으로 배격하시며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 주신 수령님이시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대한 독창적인 방안을 제시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시고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통일력

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몸소 받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로고를 다 기울이시었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의하여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되었고 통일애국헌장을 관철하는 길에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채택발표됨

으로써 새 세기 자주통일위업은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근 반세기에 달하는 기나긴 세월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해 아버지수령님께서 기울이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는 조국통일3대원칙의 자자구구에 력력히 어려있고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관련문건에 남기신 친필에도 그대로 깃들어있다.

오늘 조국통일 위업은 경에 하는 김정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새로운 력사적분수령에 올라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신것은 삼천리강토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계기를 열어놓은 뜻깊은 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 땅우에는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이 일떠서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아버지이시다. 일찌기 10대의 어린 나이에 애국의 길,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80고령에 이르는 그이의 혁명생애는 《인민》이라는 두 글자와 더불어 빛나는 고결한 한생이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새 사회건설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헌명하게 령도하시여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강국, 참다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 수령님이시다. 이 민 위 천 은 아버지수령님의 지론이였으며 그이의 모든 사색과 실천, 활동의 근본초석이였고 좌우명이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언제나 마음속 첫 자리에 놓으신분이시기에 해방된 이듬해 토지개혁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채택공포하시여 인민을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내세우시였고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속과 불평등에서 해방시켜주시였다. 또한 나라의 국호도, 이 땅우에 솟아나는 창조물들도 《인민》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불리워지도록 하시였으며 력사상 세금이 없는 첫 나라의 탄생을 선포하시고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의 실시와 함께 모든 아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철따라 옷을 해입히는것을 비롯하여 인민적인 시책들을 펼쳐 주신 아버지수령님이시다. 그 나날에 있는 많고많은 일화들중에 약값에 깃든 이야기

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언제인가 수령님께 보진부문의 한 일군은 인민들이 좋은 제도하에서 의료상혜를 너무 받다보니 약이 귀한줄 모른다 하고 하면서 가정들에서의 의약품낭비를 없애자면 병원에서 약값을 조금씩은 받아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린적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많은 적든 약을 지어주고 돈을 받으면 그것은 약값이 있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돈 한푼 안들이고 마음껏 치료를 받을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 보고싶은것은 세기적인 숙망이였다고, 지금 돈 한푼 안들이고 약을 마음대로 쓰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원의 하나가 풀린것인데 이 귀중한것을 어떻게 몇푼 안되는 돈과 바꿀수 있겠는가고 준절히 이리시였다.

사실 약값을 받자는 의견은 전반적무상치료제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이 한창이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제기되였었다.

그때 해당부문에서 의약품을 다른 나라에서 사다쓰는 형편이므로 병원에서 약값을 분리시켜 약값만을 받자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아신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만나시고 그렇게 하는것은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옳지 않은 행동이며 우리 제도에 손실을 주는 행동이라고 엄하게 나무람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공화국에서는 가렬한 전시의 환정속에서 무상치료를 국가적으로 제도화한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보건제도가 마련되였던것이다.

한평생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시고 료예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시련속에서, 령이나 다름없는 빈터와 폐허우에서 민족의 번영을 위한 모든 토대와 재부를 마련해놓고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를 펴신 수령님과 같은 애민의 정치가, 회세의 위인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인민들을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는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고 인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세기적변혁을 안아온 인민적수령의 고귀한 행로이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남기신 아버지의 성스러운 혁명실록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고 하시면서 나는 나의 한생이 결코 남달리 특별한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생이며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생이였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만족할뿐이라고 피력하시였다.

참으로 민족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한평생 인민을 위해 묵은 날, 마른 날 가림없이 멀고 험난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온갖 고생도 락으로, 보람으로 여기신분이시여서,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크나큰 업적을 쌓으시고도 오로지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의 행복한 세상을 마련하신데서 만족을 느끼신분이시여서 인민은 그이를 끝없이 경모하며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 주체의 태양으로 길이 받들어 모시는것이다.

박래섭

주체70(1981)년 7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인 재미동포 김성락목사를 만나시였다. 그로 말하면 해방전 평양에서 교인 생활을 하고 후날 미국에 건너가 종교교육을 수료하고 당국으로부터 봉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미국종교계의 영향력있는 교인의 한사람이였다.

그날 평양을 못 잊어 찾아왔다는 그를 만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애국지사라고 높이 평가하시며 그를 위해 오찬을 베푸시였다.

시

통일 전 필 비 앞 에 서

김 윤 식

<p>민족의 아버지를 못 잊는 겨레의 마음이 끝없이 물결쳐오는 곳 7월의 판문점 수령님 불멸의 친필비가 여기에 숭엄히 서있노라</p> <p>통일, 통일을 두고 그리도 마음을 많이 써오신 수령님 그이 한생에 높된 통일의 불같은 열망 굳세인 통일의지 이 글밭에 어려 뜨겁게 타오르누나</p> <p style="text-align: center;">《 김 일 성 1994. 7. 7. 》</p> <p>밝아오는 통일의 려명 미소속에 그려보시며 한자한자 하나가 된 강토에서 모여살 겨레의 모습 그리시며 한자한자 수령님 남기신 생애의 마지막 친필이여</p> <p>이 아홉글자에 다 어려있어라 통일만 되면 10년은 젊어질것 같다 하시며 걷고걸으신 길우에 바쳐오신 로고가 통일의 경륜으로 겨레의 앞길 밝혀주시며 지세우신 한생의 천만밤들이</p> <p>자주로 평화로 민족의 대단결로 기어이 겨레가 안아와야 할 통일강국의 모습이 어려있어라</p>	<p>힘겨워도 어려워도 끝까지 가야 할 굳세인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어라</p> <p>통일의 길에 쌓으신 수령님 한생의 고귀한 업적 수령님 뜻으로 수령님 의지로 장군님 열어가신 통일의 길 오늘은 그 길우에 원수님 통일의 구성으로 서계시거니</p> <p>수령님들의 조국통일로선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통일의 앞길 열어가야 한다고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선언하신 원수님 판문점에 굳건한 친필비처럼 수령님들의 통일로선은 변함없는 통일의 기치</p> <p>하기에 통일의 상징 판문점에 서있는 친필비는 오늘도 삼천리 이 땅우에 빛나고 래일도 영원히 찬연히 솟아 빛나고 빛날 기념비!</p> <p>오, 김정원수님 밝혀주신 자주통일의 대통령로 따라 폭풍쳐 나가는 겨레의 가슴에 심장처럼 간직된 통일친필비 불멸의 금문자로 빛을 뿌리며 통일의 그날에도 온 겨레를 부른다</p>
---	--

그와 함께 오찬석상을 함께 하신 수령님께서는 먼저 선생이 식전기도를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고 나직히 권고하시였다. 그 말씀에 로목사는 무척 당황해하며 몸둘바를 몰라하

구심과 회의심은 일시에 사라졌다. 사실 그 자리에서만은 신자의 도리를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느님께 기도드리는것을 그만두려고 마음가졌던 그였다.

로목사가 올린 식전기도

였다. 잠시 얼떠름해있는 그에게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평생을 지켜온 신자의 도리를 어겨서야 되겠는가고, 어서 기도를 드리라고 다시금 권유하시였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모든 위

과거지사를 불문하고 주의 주장, 신앙의 차이같은 모든것을 초월하여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리념을 지니신 김일성주석의 넓으신 도량과 포용력에 감복한 그는 자리에 서 일어나 평생을 해온 그대로

식전기도를 하였다. 《기록하신 하느님》을 외운것이 아니라 하늘이 낸 위인이신 주석님의 건강장수를 기원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념원하여 기도를 올리였다.

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요청한 그는 기도를 올릴 때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저는 주석님의 말씀을 어길수 없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충심으로 김일성주석님을 위하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본사기자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비핵화》 꾀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

핵이 없는 세상, 핵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 념원이다.

더우기 수십년동안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공갈을 받으며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우리 겨레에게 평화롭고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으며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시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며 영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립없는 의지이다.

우리가 만단을 이겨내며 외세의 핵위협과 핵선제공격을 충분히 제압할수 있는 강위력한 역제력을 갖춘것도 구경은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있는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적대세력들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뿐아니라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과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정책적립장을 명백히 밝히었다.

이미 우리는 그 관철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투쟁에 진입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의연히 우리의 핵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느니,

《북비핵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어떤 문제도 풀릴수 없다느니 하는 꾀변만 집요하게 늘어놓으면서 내외 여론을 심히 어지럽히고있다.

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때 대한 우리의 건설적제안도 《선 북핵포기》라는 황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거부하고있는가 하면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과 대화노력에 대해서도 《선 북비핵화》의 약칭으로 정면도전해나서고있다.

특히 박근혜당은 《선 북비핵화》를 만능의 구결방편으로 내들고 여기저기를 분주히 싸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압박공조를 빌어대느라 갖은 추태를 다 부리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비핵화의 본말을 완전히 전도한 어리석은 처사이며 명실상부한 핵전범자들이 저들의 구린내나는 정체를 덮어두고 우리의 핵포기를 강요해보려는 가소로운 망동이 아닐수 없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폐기와 남조선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어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키고 악화시켜온 주범들로서 그 무슨 《북비핵화》에 대해 떠들 초보적인 자격도 체면도 없다.

지난 세기의 50년대 조선전쟁때 원자탄공갈로 한집안, 한가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는 뼈아픈 고통을 가져다준것도 모자라 전후 남조선에 무려 1, 000여개의 각종 전술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크고작은 북침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전대미문의 핵위협을 계속 가해온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 땅에 무시로 들쭉위지는 무분별한 핵전쟁위협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

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진지한 노력에 의해 1990년대 초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지만 이를 로골적으로 짓밟으면서 사문화시킨 장본인 역시 다름아닌 미국과 괴뢰패당이다.

미국은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NCND정책》을 표방하면서 괴뢰패당을 내세워 남조선에 범죄적인 핵무기반입을 계속하는 한편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과 공갈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왔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은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의 친미 보수세력은 조선반도에서 핵폐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적극 동조했으며 특히 박근혜당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마저 무기한 연기하면서 미국의 3대전략핵타격수단들을 모두 끌어들이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려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조만까지 포함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첨단전략타격수단들을 갖추게 된것은 너무도 웅당하고 필연적이다.

지금 미국과 박근혜당이 게거품을 물고 《북핵위협》을 떠들지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유한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핵몽둥이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된 자괴심에서 오는 분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의 정의와 량심에 묻는다.

그래 미국은 언제이든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사용할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 엄청난 재난과 불세례를 고스란히 앓아서 당해야만 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오늘의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만능의 법칙인가.

어찌하여 핵을 휘두르며 우리 민

족, 우리 겨레에게 막대한 불행과 희생을 들쭉은 미국에 대하여서는 단 한번도 핵포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 최대피해자인 우리에게 대 해서만 핵을 내려놓으라고 강박하는가.

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가장 란폭한 유린이고 엄중한 침해가 아니란 말인가.

미국과 괴뢰패당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끈질기게 들고나오는 《북비핵화》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통할수 없는 근본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들의 핵우세를 지속시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욕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그에 전적으로 추종해온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핵포기를 운운하기 전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체계적으로 방해해온 최악의 과거부터 심각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얼토당토않은 《핵위협》과 《도발》의 감투를 우리에게 넘겨씌우며 일방적인 《북비핵화》를 떠들것 아니라 마땅히 제손으로 만들어 놓은 핵매듭을 제손으로 푸는 길로 나와야 한다.

그 길은 《선 북비핵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공갈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수십년세월 무고한 우리 민족, 우리 겨레에게 온갖 위협과 공갈을 가해온 침략의 핵이 선차적제거대상이며 나아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미국과 괴뢰패당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우리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있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순리이고 순차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시 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거하고 세계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며 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박근혜를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에게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똑바로 보고 상전과 맞장구를 치면서 《북비핵화》로 살구멍을 찾으려고 더이상 잔꾀를 부리지 말것을 충고한다.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를 한사코 외면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핵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그 위력은 상상할수 없는 고도화경지에 이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행동여하에 달려있다.

주제105(2016)년 7월 6일
평 양

예로부터 어린이는 즐거움의 샘이라고 했다. 행복의 노래소리 량랑히 울려나오는 배움의 교정, 밝게 웃으며 명랑하게 뛰노는 아이들을 찾아 경적소리 정답게 울리며 들어서는 콧수염이... 이것이 즐거움의 샘을 더욱 풍만하게 해주는 공화국의 현실이다.

얼마전부터는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새긴 글자와 그림도안을 그린 새 콧수염이 경쾌하게 달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있다. 무심히 볼수 없는 모습이다.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는 콧수염차를 가리켜 사람들은 사랑의 왕차라고 정답아 부른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공화국처럼 국가가 아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의 튼튼한 성장을 위해 장수식품으로 이름난 콩으로 우유를 생산하여 영양학적요구에 따라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주는 나라가 없다.

공화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즐겨 기다리는 《콩우유시간》에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본태가 비껴있다.

일찌기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우는것만큼 그들의 건강과 발육에 좋은 식료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평양에 어린이식료품공장을 일떠세

◎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키종한것 (11) ◎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는 사랑의 왕차

워주시고 1979년에는 영양우유 직장도 꾸려 아이들에게 생산공급하도록 하시었다.

첫 콧수염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수화기를 드신채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구절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의 정은 영양음료와 함께 행복동인들의 몸으로 따듯이 흘러들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새 세대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여 영양학적으로 아이들에게 흡수력이 제일 좋은 시간을 공급시간으로 정해주시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콧수염을 동시에 먹을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이에 따라 사랑의 왕차로 정답게 불리워지는 콧수염문수송차들이 정연하게 세워진 공급체계에 따라 거리들을 달리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으며 모든 도로들에서 콧수염차들에 대한 우선적이며 즉시적인 통행질서가 새롭게 세워졌다.

그처럼 준엄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아이들에게 콧수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국가의 최종대사로 된 가슴뜨거운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

려져있다.

어린이의 모습은 행복한 날에는 더 기쁨을 주지만 어려운 날에는 더 고통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모진 시련을 겪었던 나날에도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누구나 함박꽃처럼 활짝 피어나 나라에 웃음과 량만을 더해주었다.

공장의 기대가 멎고 살림집 불빛이 꺼진적은 있었어도 아이들의 글소리, 노래소리가 끊긴적은 없었으며 한g의 쌀, 한w의 전기가 귀한 속에서도 아이들의 얼굴에만은 절대로 그늘이 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에 의

해 콧수염산공급에서 나서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국방위원회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특별대책이 세워져 인민군대의 수송대가 원료를 운반하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창고에만은 콧수염원료가 가득가득 쌓여있으며 전기와 증기도 중단없이 보장되어 콧수염산은 줄어든것이 아니라 오히려 1.2배로 늘어났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의 력사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콧수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거듭 현지지도하시였을뿐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콧수염공급에 필요한 새 운반차들을 보내주시고 몸소 운반차에 새길 글자와 그림도안까지 지도해주시며 다심한 정을 기울여주시었다.

대규모의 어린이영양식료품 전문생산기지로 전변된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영양가 높은 콧수염을 지금까지 3억여 t나 생산하였으며 락아소, 유치원들과 소학교, 중학교들에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주고 있다. 콧수염차들이 평양 시내 락아소, 유치원, 학교들을 찾

아 지금까지 달린 거리는 연 1610여만km로서 지구둘레를 수백번이나 돈것과 같다.

전국 각지에 콧수염산기지가 수없이 일떠섰다. 각지의 도, 시, 군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콧수염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책임지고 우선

적으로 풀어주는것이 철칙으로 되고있다.

《국가정책속 어린이는 나라의 찬밥, 어린이만을 위한 아동예산은 3.6%에 불과》, 이는 얼마전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실린 기사제목이다. 기사는 당국이 시행하는 어린이정책을 분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나라가운데 32위에 해당할만큼 아동을 위한 예산이 적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들 하는데 과연 《정부》는 어린이에게 보배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있는가.》고 남조선사회의 현실을 개탄하였다.

남조선만이 아니다. 지구상의 수억만 어린이들이 《자선》과 《복지》의 간판밑에 영양실조로 시들어가고있는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하기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참관하는 외국인들은 국가가 어린이들에게 콧수염을 비롯한 영양식료품을 생산보장하는데 대해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놀라운 현실이라고, 아이들의 《왕국》인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는것이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매일 어길수 없는 일과로 콧수염을 반겨맞는 공화국의 현실은 후대들의 영양관리까지 나라에서 도맡아 보살펴주는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인류가 바라던 이상사회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에는 몇해전 남조선 당국의 유인람치행위의 희생물이 될뻔 했던 류철룡학생이 있다. 남조선 정 보원놈들에게 속아 2년 동안이나 이웃나라의 어둠 침침한 방에서 세상과 담 을 쌓고 종교교육과 세뇌 교육을 강요당하며 노예 처럼 생활하다가 남조선 으로 끌려가던 도 중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류철룡.

하던 애된 모습은 간데없 고 키도 더 크고 온몸에 건강미가 넘치는게 얼마 나 의젓한지 몰랐다. 담임교원의 안내를 받 아 우리는 철룡학생이 공 부하는 교실과 그가 생활 하는 기숙사를 돌아보며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 었다. 철룡학생은 의리심이

집단의 뜨거운 사랑을 페 부로 느낄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류철룡학생 은 《저는 이 세상에 두번 다시 태어난 복받은 행운 아입니다. 제가 그때 놈들 에게 끌려 남조선땅에 끌 려갔더라면 저에게 어떻 게 오늘과 같은 이런 행복 이 있을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며 지금도 그때를

은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 몸부림치고있었는가. 그 들이 어떤 천대와 모욕속 에 살며 무엇을 강요당하 겠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정말이지 공화 국의 청소년들과 주민들 을 대상으로 한 놈들의 유인람치행위는 21세기 현대판노예매매, 야만행 위이다. ...

절망의 나락에 서 헤매이던 류철 룡학생은 지금 병 들고 상처입은 자 식에게 더 마음을 쓰는 어 머니의 심정 그대로 뜨거 운 사랑과 정을 부어주고 있는 고마운 사람들속에서 복받은 행운아로 살고 있다.

금성제1중학교에서 배 움의 나라를 펼치던 나날 자기들의 학업성적을 높 이고 마음의 그늘을 가셔 주느라 원심을 써주던 선 생님들과 동무들, 구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주거 위해 애쓰던 모리사어머 니의 다심한 모습이 내 조 국의 따스한 정이었음을 심장으로 느끼면서.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로 모시 고 화복한 하나의 대가정 을 이루고있는 공화국에서 그리고 체험할수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 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없는 아이들일수 록 더 따뜻이 안아주시고 가슴속에 상처입은 자식 일수록 더 뜨겁게 보살 피주시며 사랑에 사랑을 덧쌓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사랑과 정 이 제일로 많으신 우리들 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십 니다.》라고 걱정을 터치 며 노래 《불타는 소원》 을 절절하게 부르는 철룡 학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곱도 후더워졌다. 본사기자 고영숙

복 받은 행운아

어린 나이에 생 소한 곳에서 어머니없는 설움을 한탄해야 했던 철 룡이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것이 엇그제같은데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얼마 전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 대학을 찾았다.

우리가 대학을 찾았을 때 속도보앞에 대학생들 이 모여있었다. 알고보니 류철룡학생이 속보에 낫 던것이다. 동무들의 축하 를 받으며 철룡학생이 어 렷한 대학생이 된 기쁨속 에 웃고있었다. 금성제1중 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4월 1일 이 대학의 경제관리학 부 1학년에 입학한 류철룡 학생은 컴퓨터와 외국어 에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공부할 열심히 하여 동무 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이 몇해전 TV에서 람치행되 자들의 죄행을 폭로규탄

매우 강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내성적이라는것, 자기와 같이 이웃나라에 함께 유괴되어가서 고생 하던 동무들과의 우정이 남다르고 모든 일에 자신 심을 가지고 참가하곤 한 다는것, 학부모님들이 아 버지, 어머니가 되어주고 학급동무들과 학부안의 많은 동무들이 그의 학습 을 성의껏 도와주며 생활 상문제를 친형제의 심정 으로 도와주고있다는것,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 는 학생들과 서로 도우며 한집안식구처럼 살고있 는것...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색다른 물건이 하나 생겨 도 철룡학생부러 생각하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버렸 다는 학급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는 철 룡학생을 위해 기울이는

생각하면 몸서리쳐진다고 하면서 격분에 넘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때 성경책을 읽 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장목사 처의 눈을 피해 딱지와 비행기, 땅크, 배 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들쭉나서 죽도록 매를 맞았다. 장목사 처 는 《북이 핵을 만든다, 미싸일을 쏜다 하며 야단 치고있는데 이젠 나까 지 선군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갖은 행패질을 다 하였다. 한번은 야구방망 이로 영치를 얻어맞아 며 칠동안 썰록거리며 다니 지 않으면 안되었다. 라 른 애들도 쇠몽둥이로 얻 어맞지 않으면 벌을 서기 가 일주였다. 그야말로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마음 대로 말도 못하고 마음놓 고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조롱속에 갇힌 병든 새와 같다. 몇달전에 중국에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 던 12명의 누나들이 집단 적으로 남조선의 정보원 깡패들에게 람치되어 끌 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레도 나는 남조선으로 끌려가기 전에 조국의 구 원을 받아 다행히도 그 저 주로운 땅에 가라지 않았 지만 그곳으로 람치되어 끌려간 식당종업원누나들



류철룡학생 (왼쪽에서 세번째)

로미화는 아들이 입원해있던 호실의 침대머 윈락 등을 빙 둘러보았다. 정들은 모든것을 눈에 담아 가고싶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꼭 꿈을 꾸는것만 같 았다. 한쪽 다리를 잘라야 한 다던, 일생 지팡이신세를 면치 못한하던 아들 정혁이가 오늘 은 제발로 걸어서 병원문을 나 서게 된것이다. 2년전만 해도 도저히 일어날수 없었다던 기적 이 현실로 되다니?! 로미화는 그것이 단지 끊어진 팔다리로 척척 있다는 침단의료기술의 덕이라고만 생각지 않았다.

높은 의술과 지극한 정성으 로 정혁이의 다리를 고쳐주 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온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미세성형외과 연구실의 장명국 실장을 비롯한 의료일군들, 이 름도 주소도 알지 못할 고마운 사람들을 떠나 어찌 정혁이의 오늘을 생각할수 있으랴. 잊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둘 눈앞에 떠올랐다.

《선생님이야 의사가 아닙니 까. 우리 정혁이를 견게 해줄 수 없습니까?》 로미화는 장명국실장의 팔을 부여잡고 벌써 몇번씩 이렇게 되묻는지 몰랐다. 뜻하지 않게 유리에 다리를 베어 피출과 근육이 다 잘려워나간 정혁이였 다. 사람들은 정혁이의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 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로미화는 눈앞이 아득했다. 집안의 말이로써 부모들의 기 대 또한 큰 정혁이였던것이다. 과학으로 나라를 받드는 20대박사가 되겠다며 그리도 열심히 공부하던 정혁이, 학급

실화 대기를 확보하라

동무들과 축구경기를 하며 뛰 놀기 좋아하던 아들이 이제는 영영 다시 뿔을 찰수 없단 말 인가. 심하게 다리를 다치고 정신을 잃은 정혁이를 병원으 로 후송해오면서 로미화는 기 가 막혀 울음조차 나오지 않 았다.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정혁이는 꼭 다시 견게 됩니 다.》

기대가 가득 실린 눈으로 바 라보는 로미화에게 장명국실장 이 이렇게 말하며 심신을 주었 다. 그 시각 정혁이의 다리상 처를 놓고 장명국실장의 생각 은 깊었다. 기성리론대로 하면 정혁이와 같이 다리의 피출과 근육이 다 잘려져나가고 피사 까지 왔을 경우 다리를 자르 는 길밖에 없었다. 허나 자르 하기에선 나 어린 삶이 너무도 소중한다.

(정혁이와 같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행을 가셔주 어야 하는것이 우리 보건일군 들이 아닌가. 나라의 인민적보 건신책을 가장 뜨겁게, 가장 정확히 인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우리가 구만리같은 정혁이의 앞길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장명국실장은 정혁이의 다 리를 꼭 고쳐주어 앞날의 소 중한 꿈을 꽃피워주리라 결심 했다. 정혁이를 원상대로 회복 시키자면 미세외과수술을 해야 하였다. 미세외과수술은 대상물을 현 미경으로 보면서 해야 하는 난

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다. 맨 눈으로 가려보기 힘든 1mm의 가느다란 혈관들과 신경들을 잇는 수술과정에 어느 하나라 도 잘못 있게 되면 다리가 피사 되어 잘라야 하거나 제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나 어린 환자의 다리를 원상회복시키려면 아무리 어려워 도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 장명국실장은 정혁이의 다리 를 수술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수십번에 달하 는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분석 하기를 그 얼마, 때로는 수술을 위한 문헌연구를 하느라 집에 못 들어갈 때도 많았다. 그만 이 아니었다. 박철룡연구사를 비롯한 미세성형외과의 성원들 도 정혁이의 수술에 도움이 될 창발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진 지하게 협의를 거듭했다. 드디어 정혁이의 다리를 수

술하는 날이 왔다. 로미화는 수술이 진행되는 10시간동안 조여드는 가슴을 안고 속을 태 웠다. 수술결과가 어떻게 되겠 는지... 기대했던대로 수술결과는 좋 았다. 수술이 끝난후 도플러를 통하여 정혁이의 끊어졌던 다리 의 혈관으로 기운차게 피가 흐 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로미화 는 너무 기뻐 속울음을 씩었다. 첫 수술후 지팡이를 짚고 일 어설수 있게 된 정혁이는 좋아 라 안다니는게 없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로미화는 어 머니로서 기쁘면서도 한편 걱 정도 없지 않았다. 정혁이가 저러다 일생 지팡이신세를 면 치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 감에서였다. 끊어졌던 피출 과 신경은 이어졌지만 지팡이 없이 견게 하자면 발목을 고정 강직시키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던것이다. 그런 정혁이를 놓고 가슴아 파한것은 로미화만이 아니였 다. 의료일군들의 눈앞에도 지 팽이를 짚은 정혁이의 모습이 지워질줄 몰랐다. 지금은 자리 에서 일어난 기쁨에 다는 몰라 도 희망이 어렸던 소년의 얼굴 에 또다시 그들이 비끼게 될 래일이 마음에 걸렸다. 의료일군들은 정혁이의 발목 을 고정강직시키는 2차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수술과정 에 이런 일도 있었다. 환자의 출혈이 멎지 않아 피가 모자라 게 되자 어떻게 알았는지 의료 일군들이 저마다 자기의 피를 바치겠다고 팔을 견고나선것이 다. 수술후에는 좀처럼 고열이 떨어지지 않는것을 걱정하며 의사, 간호원들이 정혁이의 곁 에서 며칠씩 밤을 새웠다. 그 것들 목격하며 저도 몰래 눈곱 을 훔치곤 한 로미화였다.

아침에 출근하면 정혁이한테 들려 밤새 열이 나지 않았는 가, 수술부위가 아프지 않았는 가 확인하고야 하루일을 시 작하곤 한 담당의사선생이며 영양보충에 토끼곰이상 없다 며 성의껏 만들어가지고 와 정혁이의 입에 떠넣어주던 간병 원어머니, 하루빨리 건강을 회 복하고 마음껏 대지를 활보해 야 한다며 정혁이에게 힘과 용 기를 안겨주던 사람들... 로미화는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자본주 의사회에서 정혁이가 태어났던

라던 어떻게 되었을가 하고 생 각했다. 틀림없이 영영 불구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을것이다. 그런 생각이 갈마들수록 로미 화는 정혁이를 위해 온갖 정성 을 다 바쳐온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에 감 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었다.

로미화는 병원정문앞에 사람 들이 모여들어 웃고 떠드는 소 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눈여 겨보니 퇴원하는 정혁이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의사, 간호원들이 떨쳐나선것이였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사연을 전 해듣고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 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모두의 따뜻한 바래움을 받으며 정혁이가 걸어가고있었 다. 뜻밖의 사고로 다리를 잘 라야 하던 정혁이가 지팡이 마저 집어던지고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고있었다. 밝은 태양 빛나는 하늘아 래로 활기차게 걸어가는 정혁이의 눈앞에 드넓은 대지 가 펼쳐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아버지로 모 신 화복한 대가정,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어서 오 라 손저어 부르고있었다. 대지 를 활보하는 정혁이를 축하하 며 노래 《사랑의 대지》가 울 리고있었다.

봄바람 실어온 작은 꽃씨앗 드넓은 대지에 내려 앉을 때 아직은 몰랐네 제 안긴 이 땅이 얼마나 포근한줄 미처 몰랐네 ... 본사기자 홍범식



《비핵화》의 승리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세상에 대고 《북비핵화》에 대한 꾀변을 어지럽게 내돌리고있다. 공화국의 핵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니, 《북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문제도 풀릴 수 없다는니 하며 그 무슨 선행에 대한 견해까지 내놓고있다. 모든 일에는 순차와 단계가 있는 법이지만 《북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 꾀변이 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강도적논리가 아닐 수 없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북비핵화》인가. 이것은 조선반도비핵화의 본질을 외곡하고 완전히 전도한 파렴치한 꾀변이며 평화에 대한 우롱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산생시키고 악화시켜온 주변이 과연 누구인가. 두말할것없이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남조선에 무려 1 000여개의 각종 전술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크고작은 북침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며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핵위협을 가해온 미국과 그에 추종한 남조선당이 지난날에도 미국은 저들의 전략핵무기중의 하나인 《B-52》 전략폭격기 두대를 조선반도주변 상공에 띄워놓고 공화국에 대한 폭격훈련을 감행하였다. 상대가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핵전쟁계획들을 점차 현실로 옮겨가고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은 없다. 그래 공화국이 눈을 편히 뜨고 앉아서 핵참화를 고스란히 당해야 옳겠는가. 원인없는 결과란 없다. 공화국이 자위의 핵을 가지게 된데는 미국의 불순한 침략의 핵이 있었기때문이며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그토록 떠드는 《북핵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을 산생시키고 고도로 악화시켜온 미국의 핵위협이 먼저 있기때문이다. 의학계에도 원인치료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조선반도에서 비핵화가 실현되려면 《선 북비핵화》

가 아니라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부터 완전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수십년세월 무고한 우리 민족, 우리 겨레에게 온갖 위협과 공갈을 가해온 침략의 핵이 선차적으로 제거된다면, 나아가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인류와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인 평화도 보장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의 순리이고 순차이다. 이런 것은 덮어버린 채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대적하기 위해 생겨나 날로 그 능력이 강화된 공화국의 핵을 한사코 문제시하면서 입에 게거품을 물고 공화국의 핵포기를 떠드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그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마치도 《평화의 사도》인듯이 행세하며 《북비핵화》에 대해 떠들것이 아니라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전개한 미국의 핵무기부터 없애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김혜성

6. 15 남측위원회 지역본부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성사를 요구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 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들이 4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성사를 개최할데 대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 제안을 일제히 지지, 환영하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6. 15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는 전라남도 도청과 순천시청앞에서 통일대회합성사를 위한 기자회견들을 진행하였다. 단체는 지난 6월 27일 북이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에 공개편지를 보내었다고 전하였다. 평화와 자주통일의 정신으로 일관된 북의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제안을 전적으로 지지, 환영한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더이상 대결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8월의 대회합이 성사될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하였다. 6. 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대전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일대회합개최제안을 지지한

다고 밝혔다. 발언자들은 외세에 의해 조선반도의 전쟁위기가 조조되고 남북대결이 심각해지고있는 때에 올해 8. 15를 맞으며 남북, 해외가 모여앉아 평화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남과 북사이의 대결상태가 지속되고있는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번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화해와 협력마당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을 이 랑독되었다. 회견문은 7. 4공동성명이 발표된지 44돛이 된다고 밝혔다. 1972년 당시 일족축발의 군사적긴장과 대결이 첨예한 속에서도 남과 북이 만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 원칙을 함의하였다고 회견문은 지적하였다. 회견문은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7. 4공동성명의 정신이 구현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을 위해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북의 이번 통일대회합개최제안을 《상투적인 수법》으로 호도할것이 아니라 남북관계회복의 기회로 삼고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회견문은 강조하였다. 회견문은 화해와 협력으로 분열을 끝장내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펼쳐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이날 6. 15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울산본부도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성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본사기자



최근 공화국은 최악에 이른 북남관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민족의 통일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숭고한 일념에서 남측당국에 선의의 제안들을 련이어 보내고 통일의 동반자가 될데 대하여 뜨겁게 호소도 하고 있다. 그런데 남측당국은 동족의 이 모든 선의와 아량을 뿌리치고 외세와의 제재압박소동에만 피눈이 되어 매달리고있다. 그러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어떠한 대화제이나 호소도 《진정성》이 없는것이라고, 《위장평화공세》라고 우격다짐으로 떠들고있다. 얼마전 공화국이 조국해방 일흔한돛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는 내용의

공개편지를 보낸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은 《핵포기》의사가 없이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자고 하는것이 《진정성》이 없는것이라는 해괴한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통일애국의 진정이 넘치는 동족의 선의와 아량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세인이 조소하는 동족대결 망동을 끝없이 지속하려는 범최적인 꾀변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당반에 올려놓고 남조선을 위협하지도 않는 공화국의 자위의 핵에 대해 계속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철면피한 행위이다. 세계에는 핵을 가진 나라들과 핵이 없는 나라들사이에도 국교관계가 있고 활발한 교류협력사업들은 다하고있다. 하물며 북과 남은 나라들사이관계도 아니고 피를 나눈 동족이다. 남북의 위정자들이 핵때문에 북남사이의 모든 일이 안되는듯이 떠들고있는것은 파렴치한 현실기만이고 생역지이다. 사실 남측당국의 견지에서 보면 북의 핵에 대해 입을 열릴 한 조각의 체면이나 합당한 리유도 없다. 공화국이 과연 누구때문에 핵을 가지게 되었는가. 공화국이 핵을 가지기 훨씬 이전인 수십년전에 미국은 1 000여개에 달하는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공화국을 지속적으로 핵위협하였다. 결국 공화국은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의 전략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은 실세없이 남조선에 날아들어 공화국을 핵타격하기 위한 연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이 진짜핵위협과 저들의 범죄행위는

이며 통일하여 함께 살아야 할 하나의 민족이다. 이런 혈육이 사는 남조선에 공화국의 핵이 위협으로 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고 그것때문에 대화도 관계개선도 안된다는것도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은 자기의 핵이 남조선인민들을 겨냥한것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루차 천명하였었다. 그것은 철두철미 국가의 주권과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미국에 대항한것이며 미국을 겨눈것이다. 공화국은 병진로선을 항구적인 전략로선으로 채택한 상태이다. 침략적인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자기의 정의의 핵을 포기할수 없다는 의지도 명백히 천명하였었다. 하다면 남측은 실현될수 없는 허망한 《북핵포기》 환각에 사로잡혀 북과 영원히 대화도 안하고 관계개선도 안하겠다는것인가. 문제는 이렇게 선다. 한때는 세상이 소란스럽도

록 《신뢰》와 《대화》를 부르짖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시치미를 떼고 《대북제재》일변도에만 매달리는 남측의 걸과 속, 앞뒤가 다른 신의없는 행위와는 얼마나 대조적인것인가. 공화국의 통일노력은 삼척동자도 느낄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다. 지난해에도 공화국은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변혁하고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열자는 통 큰 호소를 제안하였었다. 그리고 온 한해 최고수뇌부의 의중을 반영한 수많은 획기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모처럼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기회들도 마련하였었다. 올해는 또 어떻게 흘러왔는가.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것이라는 애국의 립장도 천명하고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데 대하여서도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그리고 당대회에서 천명한 통일로선과 방침관철을 위해 조국해방 일흔한돛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가질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도 내놓고 얼마전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민족의 자주적운명과 통일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 전개해나가기 위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특기할 조치도 취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수많은 언론들과 각계 인

사들, 전문가들이 북의 이러한 조치를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성의있는 조치》로 크게 떠들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민족문제, 통일문제는 아예 뒤전에 밀어놓고 《대북제재공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평양진격》이니, 《참수작전》이니 하며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대규모 핵전쟁연습을 벌려놓는것도 모자라 북이 숨을 못쉬게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돌아치며 악정을 돌구어대는 그 죄 많은 행동만으로도 남측은 민족의 징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공화국은 분열로 신음하는 겨레를 생각하여, 외세가 강요한 민족의 이 비극이 더이상 지속되는것을 용납할수 없기에 자기를 해치려고 별의별 악한짓을 다하는 상대를 그래도 《통일의 동반자》로 불러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아량과 선의의 손길도 내밀었다. 속담에 덕은 덕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다. 진정에는 진정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다. 화해와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고 것처럼 거들 내미는 동족의 따뜻한 손길을 뿌리치고 계속 비수를 내대는 남측당국의 미지각하고 후안무치한 행위에는 성의와 진정이라는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보아도 표물만큼도 안보인다.

누구의 말이 진정한가 - 남조선당국의 《진정성》타령을 두고-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위장 평화 공세》인가

북남합의를 짓밟은자들의 파렴치한 녀두리

예로부터 뻔뻔스럽고 럽치가 없는자를 두고 《쇠로 낮가죽을 씌웠다.》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철면피도 울고 갈 파렴치한이 있다.

지난 4일 먹자판에 마주 앉은 박근혜는 《오늘이 7.4북남공동선언발표 44주년이 되는 의미깊은 날이다.》느니, 《7.4성명은 남북이 처음으로 평화적인 대화를 갖고 통일의 대원칙을 함께 마련했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느니 뭐니 하며 낮간지러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아닌 밤중에 흥두개라고 여직껏 북남선언들을 한사코 부정하고 외면해오던 집권자가 갑자기 입에 꿀발린 소리를 해낸 것이다.

하지만 세살치버릇 여든까지 가고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고 더러운 본색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다.

한참 중얼거리던 그가 《북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비롯한 북남합의를 리행하지 않아 오늘날 엄청난 사태가 조성되었다.》, 《북의 변화를 기다리며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 도발만 지속되었다.》며 대결악행을 토해낸 것이 그것이다.

그야말로 낮가죽이 꿈의 발동보다 더 두터운 파렴치한 껍데기라 하지 않

을수 없다.

공화국이 통일의 길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로선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로선이다. 공화국에서 해마다 울려나온 수많은 각종 제언, 호소들은 그 기초에 북과 남이 일찌기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이 놓여 있다. 《오늘이 7.4성명은 남북이 처음으로 평화적인 대화를 갖고 통일의 대원칙을 함께 마련했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느니 뭐니 하며 낮간지러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아닌 밤중에 흥두개라고 여직껏 북남선언들을 한사코 부정하고 외면해오던 집권자가 갑자기 입에 꿀발린 소리를 해낸 것이다.

하지만 세살치버릇 여든까지 가고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고 더러운 본색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다.

한참 중얼거리던 그가 《북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비롯한 북남합의를 리행하지 않아 오늘날 엄청난 사태가 조성되었다.》, 《북의 변화를 기다리며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 도발만 지속되었다.》며 대결악행을 토해낸 것이 그것이다.

그야말로 낮가죽이 꿈의 발동보다 더 두터운 파렴치한 껍데기라 하지 않

니, 《한장의 종이장에 운명을 맡길수는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북남합의를 판독하게 유린하였다. 남조선의 역대보수집권자들도 민족대부문을 제외하고는 청탁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제재와 공조를 구걸하며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렬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를 일삼아왔다.

특히 현 집권자는 그 누구보다도 친미사대굴종행위에 매달리면서 《동맹》의 미명하에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예결해나서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통일외교》놀음도 분주하게 벌리고 있다. 여기에 어디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라든가 미가 꼬물만공이라도 보이는가.

민족이 합의한 평화통일원칙을 판독하게 위반한것은 남쪽의 호전당국이다.

해마다 미국과 함께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최대로 끌어올리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의 호전파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대규모적으로 벌려놓고 《평양진격》이니, 《참수작전》이니 하며 전쟁화약내를 한껏 풍기었다.

민족이 대단결하자는 통일의 대원칙에 정면도전하여 함께 손잡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보안법》을 아직도 신주모시듯 하면서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의로운 단체들과 인사들을 《중북》으로 몰아 박해탄압하는 회세의 대결미치광이들도 남조선보수당국이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합의외반》을 떠들고 《도발》이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낮가죽 두꺼운 행위이고 저들의 치명리는 반통일범죄를 가리워보려는 알락한 술책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아무리 력사와 현실을 외곡하며 갖은 궤변을 늘어놓아도 북남합의들과 겨레의 통일위업수행에 온갖 장애물만 덧쌓아온 저들의 범죄 《치적》을 가리울수 없으며 통일이 아니라 대결에 사는 더러운 정체를 숨길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통일을 위하는 마음이 조급이라도 있다면 수치스러운 동족대결정책을 하루빨리 버리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비롯한 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는 데로 나와야 한다.

강현철

더 늦기 전에 진통 전범에 파면형야 한다

최근 공화국은 조국해방 일흔한 돌을 맞으며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공개편지를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인사들에게 보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광복절에 회세의 대결미치광이들도 남조선보수당국이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합의외반》을 떠들고 《도발》이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낮가죽 두꺼운 행위이고 저들의 치명리는 반통일범죄를 가리워보려는 알락한 술책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아무리 력사와 현실을 외곡하며 갖은 궤변을 늘어놓아도 북남합의들과 겨레의 통일위업수행에 온갖 장애물만 덧쌓아온 저들의 범죄 《치적》을 가리울수 없으며 통일이 아니라 대결에 사는 더러운 정체를 숨길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통일을 위하는 마음이 조급이라도 있다면 수치스러운 동족대결정책을 하루빨리 버리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비롯한 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는 데로 나와야 한다.

강현철

개성공단 폐쇄가 왜 더 엄다

지금 북남대화와 교류협력을 전면차단하고 국제적인 《대북압박공조》강화를 떠들어대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극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 신문 《한겨레》가 폭로한데 의하면 보수패당은 《8~9월경이면 북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수밖에 없다.》는 허황한 판단에 기초하여 9월까지 《민간급의 대북교류협력과 접촉도 일체 불허한다.》는 《지침》까지 세웠다 는 것이다.

이런것을 두고 개공이라고 한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박, 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만리마의 속도로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공화국의 경이적인 모습에서 놀라움과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남조선보수당이 북남관계를 완전 격폐상태로 몰아간것으로 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이다.

단적인 실례로 개성공업지구가동의 전면중단만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

보수패당은 마치 개성공업지구가동의 《전면중단》이 공화국의 핵시험 및 위성발사에 따른 《뼈아픈 고통》으로, 《후독

한 대가》로 작용하는듯이 여러석게 늘어대고 있다. 하지만 초보적인 수자만 련거해보아도 그것이 누구에게 《뼈아픈 고통》이고 《후독한 대가》로 되고있는지는 인츰 알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의 동음이 울린 때로부터 10년만에 남측인주기업들의 루적생산량은 무려 23억US\$에 달하였으며 순한 경제적효과는 32억 6 000만US\$나 되었다. 약육강식의 남조선사회에서 대기업들을 살찌우는 《구류동》신세에 불과하였던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개성공업지구는 자기 승물을 열어준 《산소통》이나 같았으며 죽어도 묻히고싶은 《리운성장의 옥토》였다. 하지만 박근혜보수패당의 무분별한 동족대결광기에 의하여 그들은 하루아침에 《운명의 지평점》을 잃게 되었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천문학적액수의 빚더미에 올라앉은채 파산되었으며 살길이 막혀버린 수천수만의 노동자들은 생계수단을 하루아침에 잃고 절망과 자살의 길에서 허둥대고 있다.

격분한 남측기업들은 《12만 4 000여명의 생존을 버랑끝으로 내몰았다.》

다.》, 《대북제재가 아니라 대남제재이다.》, 《목숨값을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며 파감한 반 《정부》투쟁을 벌리고 있다.

얼마전에도 개성공업지구관련기업들은 서울에 있는 《정부》청사앞에서 《방북허용》과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보상, 전면적인 재가동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연이어서 열었고 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북남대화과 교류협력을 전면차단하고 반인민적인 악정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역적패당을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용암마냥 세차게 타고르고 있다.

개공의 결과는 좋지 못한 법이다.

9월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 세찬 불길에 타죽게 될 운명에 처한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역적패당이다.

제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것도 생각 못하고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박근혜 《정권》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김명성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예측 《협정》

현시기 자주로 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사대와 예측으로 몰락하는 땅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66년 7월 9일 남조선강점 미군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이른바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이라는 것이 조작되었다. 이 《협정》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점을 《정당화》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의 무제한한 만행과 략탈을 허용하며 미국의 소위 《치외법권》적지위를 《합법화》하는 전략적이며 예측적인 《협정》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무분별한 범죄행위로 인명, 재산피해가 막심한 조건에서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은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사실상 미군측에 넘겨주고 있다.

결국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은 미군에게 온갖 특혜와 치외법권을 제공해주는 《범죄허가증》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이 《협정》이 조작된 후에도 남조선강점 미군은 저들의 만행에 대하여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군의 만행은 더욱 공언외 판독하게 감행되어왔다.

최근 시기에도 미군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죽음의 수소폭탄으로 불리우는 위험천만한 략자균을 남조선에 들여와 10여차례의 끔찍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치사율이 95%이상에 달하는 략자균뿐 아니라 페스트, 지카비루스까지 제 땅이 아닌 남조선땅에서 실험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을 거러낌없이 위협하는 미군의 행위는 인륜도덕도, 법도 안중에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법적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미군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항변 한마디 못하고 있다.

남조선미국 《행정협정》 제9조에 의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에 배송되는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남조선 《정부》가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미군은 이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없기때문이다.

결국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는 미군의 생화학 실험은 불평등한 《협정》이 산생시킨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행정협정》이 발표된 1967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건수는 5만 4 000여건, 범죄에 가담한 미군수는 6만 1 000여명이었지만 남조선사법당국의 재판비율은 1%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만도 미군범죄는 2 600건이상에 달하였지만 재판에 넘겨진것은 거의 없었으며 형벌을 주어도 말로 그쳤을뿐이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각계가 《미군을 가두는 건 하늘의 별따기》라고 평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군은 남조선에 보행준 《시체자》가 아니라 해아릴수 없는 피해와 손실만을 준 가해자, 범죄자이다.

그러나 범죄자는 예측적인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의 그늘밑에 《무죄》가 되어 빠졌이 돌아치고 있다.

현 집권자까지도 자기의 예비가 만든 살인 《협정》인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을 보물처럼 그러안고 오히려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복걸하고 있다.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이 조작된 때로부터 50년의 력사는 미국을 하대비로 여기는 사대매국 《정권》이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은 절대로 담보될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황진욱



남조선인터네 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로수회 조국통일범민족련(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4년간의 옥고를 이겨내고 4일 출옥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할 일념안고 공화국을 방문하였다가 2012년 7월 판문점을 통해 돌아가는 부의

장을 피뢰역적패당은 분리선을 넘어서자마자 겨레와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짐승도 낮을 불힐 야수적방법으로 체포하여 끌고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파쇼적폭거를 서슴지 않았다.

피뢰역적패당은 그 어떤 가혹한 폭압으로도 부의장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이날 대구교도소문을 나서는 로수회부의를 범민련 남측본부, 민기협량심수후회회, 4월혁명회, 진보련대를 비롯한 각계 단체 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그들은 교도소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옥중에서 조신념을 굽히지 않고 파쇼악당들과 맞서 끝까지 싸운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환영하였다.

본사기자

치마바람에 풍지박산이 된 《새누리당》

남조선의 《새누리당》이 요즘 《당권》과 《대권》을 둘러싼 시정배들의 《리합집산》과 계파 싸움으로 소란하기 그지 없다.

4.13 《총선》에서의 패배로 대표했던 김무성이 쫓겨나고 《비상대책위원회》라는것을 내왔으며 《계파라는 말을 없애고 단합해야 한다》고 떠들었지만 선거패배의 책임 을 둘러싼 친박계와 비박계의 패싸움은 잦아졌지 않나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어느파가 당권을 쥐는가를 놓고 물고 뜯는 개싸움질까지 겹쳐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의 경멸과 증오도 고조되고 있다.

남조선언론들은 《새누리당》은 뿌리에서 줄기, 잎, 열매에 이르기까지 모두 썩었다.》고 하면서 《대안은 해체뿐이다.》(《새누리당》이 오늘의 처참한 막바지에 이른것

은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의 결과때문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국회》에서 제1당의 지위를 빼앗아 버리고 《국회》의 장자까지 야당에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우한 처지에 몰리게 된것은 박근혜의 독선과 일방적인 《국정》운영때문이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는 자기의 심복들을 《새누리당》 후보로 더 많이 《공천》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이에 반발하는 류승민을 비롯한 반대파들을 당에서 모조리 내쫓도록 하였다.

결과 김무성의 《육세과동》과 같은 해피망치한 사건들이 벌어져 《새누리당》은 개개 망신을 당하고 터밭이라던 부산과 경상도지역에서까지 파멸을 당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유신》독재자에게서

물려받은 박근혜의 독선과 전횡, 심술궂은 못된 속통과 무능력한 국정운영으로 여당으로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1년 시장철 민심의 규탄과 저주를 받는 동네북의 신세가 되곤 하였다.

여야당이 합의하여 만든 《국회법개정안》이 제위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권》을 휘둘러 사문화해버린 독선, 수족처럼 부러덕던 측근들도 저한테 불리하면 매정하게 쫓아내는 전횡,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개각과 주요정책 등을 제멋대로 결정하는 오만과 못된 속통, 바람난 야개마냥 반대파들을 당에서 모조리 내쫓도록 하였다.

《경제외교》에서 큰것을 얻은것처럼 자화자찬하였지만 오히려 퍼주기만 한것이 드러나 내외의 조소거리가 된 외교무능력 등 집권자때문에 빚어진 망신거리일화들은 셀수 없는 지경이다.

결국 박근혜에게 맹목

정당다 다견에 한강물이 된 부...

2012년 《대선》 불법개입사건의 주모자로 사회 각계와 여론의 비난과 규탄속에 기가 죽어 읍지로 꼬리를 사렸던 남조선의 정보원이 요즘 제세상을 만난듯 물인지 불인지 가리지 않고 반공화국대결의 앞장에서 날뛰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풍》 조작을 위해 공화국의 주민들을 강제유인 랍치해 악명떨친 정보원이 이제는 그 무슨 《간첩》 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해낸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라는데서 정보원은 최근 간첩혐의로 2명의 남성을 체포해 조사중인데 특히 이들중 한명은 공공장소인 PC방에서 이메일로 북에 남조선정세를 담은 내용을 보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떠들어댔다.

노새가 뛰니 버새도 같이 뛰다고 남조선군기무사도 같은날 《군장병의 포섭을 기도한 간첩용의자 4명을 수사중》이라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는데서 쌍둥이처럼 같

고같은 정보원이나 군기무사가 벌린 이번의 그 무슨 《간첩단》 사건놀음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통일기운을 가로막기 위해 조작해낸 한갓 모략극에 불과하다.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올해에 들어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정어진 여러 제안들을 내놓고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공화국은 조국해방 일흔한돌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를 개최하자는 공개편지를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에게 보냈다.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받아들이수 있는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제안에 온 겨레가 열렬한 지지와 찬성을 보내고있으며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도 이에 적극 화답해나서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제안에 《통일전선공세》니, 《비핵화가 우선》이니 뭐니 하는 억지주장을 부리면서 거부하다못해 나중에는 통일민주세력들을 《중북》세력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북의 도발은 계속되고있다.》느니, 《북용호세력을 막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통일민주세력들을 《북용호세력》으로 몰아 탄압할데 대한

직접적인 폭압지령을 내린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이에 따라 정보원과 기무사는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련북통일기운을 가로막고 동족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그 무슨 《간첩》 사건을 조작해낸 것이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데는 다른 목적도 있다. 국도의 통치위기에 몰릴 때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반북대결적인 사건들을 조작하는것은 력대 남조선통치배들이 써먹어온 상투적인 수법이다. 18년간이나 권력을 차지하고 통치위기에 몰릴 때마다 각종 모략사건들과 《간첩단》 독재자가 바로 그러하다.

에비에게서 물려받은것이란 파썸독재와 권모술수밖에 없는 현 집권자가 정보원과 기무사를 내세워 《간첩》 사건을 조작해낸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 《간첩》 사건은 그만큼 현 집권자의 통치위기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미친개는 숨넘어갈 때까지 미광한다고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련북통일기운과 반 《정부》투쟁을 막아보겠다고 집권세력이 그 무슨 《간첩》 사건을 꾸며내고 그를 구실로 파썸독재의 서술푸른 칼날을 휘두르려 하지만 그것은 제명을 다 산자의 최후박악으로서 파멸의 순간만을 앞당길뿐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재수없는 주둥이》라는 별명이 붙은 남조선집권자 박근혜가 또 《실언》으로 사람들의 말뼠에 울랐습니다.

내용인즉 《취뺨》 이야기입니다.

지난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관하면서 박근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는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취뺨》 이야기입니다.

그나마도 미국회사의 《망한 취뺨》 이야기를 성공한 실례로 이야기했으니 사람들이 아연해했습니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무지와 무능이 순간에 드러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입으로 말한것을 넓은 치마자락으로 못 막는다고 말이란 얼지른 물과 같아서 다시 담지 못하는 법이지요.

말이 난감에 《취》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취란 늙은 그 생김이 좀스러운데다 술거나 물어뜯기를 좋아하고 구멍을 잘 뚫고 흠집을 치는 선수인데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물 노릇을 하여 사람들속에

서 환영받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뺨을 놓아 잡아 없애는것입니다.

인간생활에는 쥐와 관련한 많은 말들도 있는데 흔히 욕하는 소리로 쓰입니다.

매우 악은 사람은 쥐알봉수, 자질구레한것을 얻으려고 돌아치면 쥐포수, 도량이 좁고 움푹하면 쥐꼬조리, 금방 잊어먹기 잘하면 쥐정신, 야금야금 흠치기를 잘하면 쥐도적, 그외에 쥐꼬리만 한 재주니, 아는게 쥐빨도 없다느니, 쥐눈물을 쥐짠다느니, 쥐구멍을 찾는다느니 등등...

어떻습니까, 누구를 련상케 하지 않습니다.

예, 이전 집권자 리명박입니다.

인물부터 시작해서 좁은 속통에 하는 행동까지 쥐와 다를바 없어 《취박이》로 조롱받던 리명박.

한데 그뒤를 이은 현 집권자 박근혜시 리명박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준비된 녀성대통령》이니, 《약속을 지키는 인화》이니 하는 약은 수로 권력을 가로챈 교활, 심술이 뒤틀리면 심복이든 구이든 까마귀 계발 던지

듯 서슴없이 때버리는 좁은 속통, 금방 잊은 연설문내용도 제대로 몰라 물어보면 《어버버》하는 무지,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위기만 조성되면 쥐구멍찾듯 해외로 돌아치는 심보, 아프리카까지

《취뺨》 이야기

돌아치며 《대북정책》의 지지를 구걸하는 흠심... 《취》치고는 《큰 쥐》에 맞먹습니다.

아마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이 《리명박근혜》라고 통칭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 《큰 쥐》가 거꾸로 인민들을 해치는 《뺨》을 놓는데 선수라는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경제문제만 놓고보아도 《경제민주화》의 미끼를 걸어놓은 《저성장의 뺨》, 《특권경제의 뺨》, 《저성장》에 걸려 경제는 풍지박산입니다.

그러니 인민들은 《가계부채폭탄》, 《전월세대란》, 일자리위기의 《삼중고》를 겪고있고 그런 속에 《헬조선》사

최근 남조선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재향군인회》의 전 회장은 지난해에 부정부패혐의로 구속되어 올해 1월 대의원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

그 이후 회장선거를 위한 5명의 후보자가 나왔으나 이들모두가 자격박탈이나 자진사퇴로 사라져 버려 무산되었다.

후보자중 3명은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부정부패혐의로 수사를 받고있어 자격이 박탈되었으며 나머지 2명의 후보자들도 자진사퇴하였다고 한다.

자진사퇴한 2명의 후보자도 도적이 제발저라는 식의 몸사리가 아닌

지... 부패가 만연하고 썩어가는 《재향군인회》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다.

《재향군인회》의 한 상층인물은 《회장이 되기 위해 투자한 돈이 있기 당선된 뒤에는 본전을 찾으려고 한다.》며 《재모두 물러나 선거가 무산되었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고 나무는 뿌리부터 썩는다고 상층부의 이러한 부정부패로 하여 85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있다는 《재향군인회》가 밀뿌리채 흔들리고있다.

문제는 부정부패와 부패로 찌든 이러한 보수단

체의 리면에 현 《정부》가 서있는것이다.

《재향군인회》가 생겨날 때부터 《정권》을 위한 보수단체조직이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비밀이다.

현 집권자도 자기의 불안정한 체제를 지키고 파썸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돌격대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지난 시기 정보원불법개입사건을 규탄하는 각계층의 투쟁도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을 돌격대로 내몰아 란동을 부리게 하는 방법으로 제압하려고 한 현 집

권자이다.

현 보수당국은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보수단체들에 대한 예산으로 돌리고 집권안정을 위한 돌격대로 썩고있다.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인 성완중사건이 보여주듯이 보수집권세력은 부정부패의 왕초들이다.

이러한 집권세력을 보호하고 싸고도는 보수단체는 하나같이 권력과 돈에 현혹되고 매수된자들의 오합지졸이다.

썩은 늪에서는 구린내가 나듯이 이런 인간쓰레기들의 무리인 《재향군인회》와 같은 보수단체들에서 부정부패현상이 만연한것은 필연적이다.

본사기자 서 명 수

새끼들입니다.

이래놓으니 남조선인민들이 가만 있을수 없지요.

《이대로 못살겠다.》, 《나에게 죽음을 달라.》,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기억하라, 분노

과정》을 휴지장으로 만들어 녀성들과 아이들을 《보육대란의 뺨》에 몰아넣었습니다.

생존권과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중북의 뺨》을 들씌우고 민족의 통일을 《대박》이니 뭐니 친시하더니 동족대결을 위해 남조선중소상인들의 머리에 《개성공업지구폐쇄》라는 최악의 《뺨》을 던졌습니다.

이런 《큰 쥐》가 날뛰니 《새끼쥐》들도 번성합니다.

《관료파괴》를 뜻하는 《해피아》, 《법피아》, 《선피아》, 《림피아》, 《모피아》, 《산피아》, 《금피아》, 《교피아》, 《언피아》... 이제 모두 《박피아》(《박근혜+파피아》)의

《취뺨》 이야기

하라, 심판하라!》고 욕했습니다.

잘되면 내탓이고 안되면 조상탓이라 했던가요.

민심이 분노하니 박근혜는 모든 잘못을 《국회》, 야당에 전가시켜 저만 빠져나가려고 지난 4.13 《총선》에서 《국회심판론》, 《야당심판론》의 《뺨》을 놓았지만 거꾸로 제가 걸려들었습니다.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제가 만든 화는 피할수 없다는 말그대로입니다.

그래도 《큰 쥐》는 속이 살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취뺨》 이야기를 하는 속에 박근혜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제 비롯 개 못 준다.》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수》, 《단두대》, 《배

신자》, 《원용》과 같이 살기만 할수 서슴없이 하여 《행혈동물》, 《무서운 녀자》로 불리우는 박근혜에게 플라플라 그런 속담을...

속담그대로 못된 제버릇, 값아먹고 술아먹고, 흠쳐먹고, 나쁜 병만 퍼뜨리는 쥐의 속성은 버리지 못합니다.

예로부터 《취를 때리려 해도 접시가 아깝다.》, 《취잡으려다가 쌀독 깨다.》고 하였지만 아까워해서는 안됩니다.

또 이런 《큰 쥐》를 잡

아없어려면 뺨으로는 안될것입니다.

초가삼간 다 불타도 빈대 타죽는것이 시원하다는 말처럼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행만 들썩우는 《큰 쥐》와 그 무리를 없애려면 썩은 정치, 썩은 세상을 통째로 불태워야 합니다.

불나 집에서 제일먼저 도망치는것이 쥐새끼들이라고 더러운 무리들을 없애버리고 밝고 깨끗한 세상을 세우야 한다 그 말입니다.

김 현



감출수 없는 살인자의 정체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며 숨길수록 드러나는것이 바로 죄악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언론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자가 《KBS》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참사관련 보도를 축소곡할것을 강박하는 녹음기록물을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자가 현 당국을 비판하는 보도내용을 삭제하며 현 집권자가 그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현 집권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다시 보도하라고 강박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결국 현 당국에게 있어서 수백명의 생명을 구하는것보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밀막아버리는것이 더 중요하

었다는것이다. 어린것들의 생명이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각일각 꺼져가고있을 때 이것을 알면서도 구조대책을 세울 대신 판장을 보고 언론통제에만 몰두한 현 집권자이다. 바로 이것이 수백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고발하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이며 입이 닳도록 《만민복지》, 《국민행복》을 외위대는 현 집권자의 진면모이다. 또 저들에게 불리하면 축소외곡하고 지어 다시 보도하도록 강박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는것이 위선적인 현 집권자의 파렴치한 처사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러한 현 남조선당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에 중요한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오직 권력의 안위였던것 같다》, 《언론에마져 (가만 있으라.)고 압력을 가했

다.》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남조선언론들도 《청와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육성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길 없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는데 (국가)는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현 당국을 맹비난하고있다. 현 집권자는 자기의 범죄적인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건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선제인양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지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마저 강제로 중단시키려 하고있다. 이번에 드러난 《세월》호참사관련보도개입 사실은 수백명의 생명을 놓고 저울질하며 이들의 죽음을 제 고블만콤도 여기지 않고 권력안정에만 급급한 행렬한, 살인자인 현 집권자의 정체를 여지없이 발가놓고있다. 본사기자 황진욱

사멸되는 민족어, 외세의족의 극치

우리 글은 불과 40개의 자모체계로 되어있지만 그 어떤 말이나 소리, 모양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표기할수 있고 사물현상과 인간심리까지도 풍부하게 형상할수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어는 세계의 《언어올림픽》에서 최우수언어와 더불어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건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선제인양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지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마저 강제로 중단시키려 하고있다. 이번에 드러난 《세월》호참사관련보도개입 사실은 수백명의 생명을 놓고 저울질하며 이들의 죽음을 제 고블만콤도 여기지 않고 권력안정에만 급급한 행렬한, 살인자인 현 집권자의 정체를 여지없이 발가놓고있다. 본사기자 황진욱

그런것으로 하여 물질의 상태변화를 설명하자고 해도 술한 예를 먹는다고 한다. 시험에서도 문맥을 리해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어휘를 몰라 허둥지둥한 다는것이다. 어느 한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이 다니는 자기 아이의 어휘수준에 충격 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려운 영어단어는 줄줄 외우면서 쉬운 우리 말을 모르는것은 심각하다》고 실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어느 한 교사는 학생들이 상급학교입학시험을 위해 영어와 수학에만 관심을 두고 책임감과 우리 말공부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서 더 말할것이 없다고 한다. 아이고 어른이고 《월, 대박》같은 몇개의 어휘를 유독 많이 사용하는 데 웬만한 부사와 형용사를 이 단어들로 표현해버린다. 맛있어도 《대박》, 좋아도 《대박》, 큰 실수를 저질러도 《대박》, 사교가 나도 《대박》...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것이다. TV에서도 불과 10여분 사이에 《대박》이 열번 넘게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출판물의 자료는 남조선에서 천시당하고 왜소해지는 민족어실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엄중한것은 《세계화》, 락류속에 외래어, 잡탕말이 범람하여 민족어가 엉망으로 되고 민족성이 마

비되고있다는것이다. 《LG》, 《SK》와 같은 회사나 《KBS》, 《SBC》와 같은 언론의 명칭도 영어표현의 교과서가 되어야 할 잡지나 방송들도 《인사이드월드》, 《뉴스메이커》, 《뉴스피플》, 《뉴스스》, 《노컷뉴스》, 《뉴스라인》, 《뉴스투데이》와 같이 영어로 된 제목들이 허다하다고 한다. 외래어가 득세하는 속에 《왕따》나 《싱글족》(홀로 사는 사람), 《푸어족》(가난한 사람), 《이태백》(이십대는 태반이 백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과 같이 외래어가 섞인 잡탕말들, 은어들이 신조어로 쏟아져나오고있다.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것이 전부 이런 외래어, 잡탕말뿐이니 기초적인 민족어의 뜻도 모르게 된것이다. 결국 아이들의 학습방법과 교육과정, 사회와 가정환경에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다. 만년대계를 결정하는 후대교육에 대한 정책문제이고 나아가서 자주성, 민족성을 고수하여 민족의 대를 이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수난당하는 민족어에 대해 가슴아파해야 할 집권자나 정치인들이 외래어, 잡탕말을 쓰는데서 출신 모범을 보이고있으니 어떻게 옳바른 정책이 나오고 정치가 펼쳐질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현 집권자가 해외에 나가면 우리 말보다 외국어로 세벌어대기를 좋아하고 민족의 통일문제에도 《신

뢰프로세스》나, 《드레즈 렌선언》이니, 《대박》이니 하는 외래어, 비속어로 표현해왔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인, 《명사》라는 사람들의 명함장들에는 외국말이 태반이고 연설문이나 지어 공식문건도 단어와 표현의 반수이상 이 외래어로 섞여진다고 한다. 집권자들 이름이나 정치인들의 이름까지도 《DJ》나, 《YS》, 《MJ》나 《MS》 등으로, 대구경북과 같은 고유명사마저도 《TK》로 표기하는 정도이다. 민족의 삶의 터전인 강토의 일부가 외국군대에 강점당한것도 참출수 없는 모욕인데 남조선에서는 민족어까지 외래어에 점차 자리를 빼앗기고 사멸되면서 언어마저도 분렬의 위기를 맞고있다. 언어의 미국식화, 이것은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을 특징짓는 기본징표의 하나인 언어를 배척한다는것은 민족성을 저버린다는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민족은 숨쉬는 《박제품》이 되고만다. 민족어의 사멸화와 언어식민지, 이것은 남조선울 미국화하려는 미국의 사상문화적침략과 그에 편승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사대매국정책의 산물인것이다. 자주성, 민족성을 어떻게 고수하고 민족의 존엄을 어떻게 빛내여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남조선의 언어실태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교육부는 섬마을 녀교사들을 버렸다》

최근 전라남도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일어난 녀교사집 단성폭행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있다.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비난과 함께 락도, 오지에 있는 근무환경, 불합리한 승진가산점제도에 대한 비판도 일고있다. 더우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20대 녀교사라는 점에서 도서(섬), 벽지학교의 교사배치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교육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도서, 벽지학교

수는 총 706개, 근무교원수는 6 556명으로 이 가운데 녀성교원이 절반에 육박하는 3 000명이다. 특히 녀교사의 37.4%(1 121명)가 홀로 거주하고있다. ...몇년전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근무했다는 교사는 《동료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오지에 있는 관사의 경우 지은지 족히 30년~40년 넘는 곳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학교가 으스스한 곳에 위치해있

다보니 관사주변 역시 밤이 되면 적막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소재 오지마을에서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했다는 교사 역시 《스물세살때 외진 곳에 혼자 떨어져 사는것도 힘들었는데 관사가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거실 한 가운데 비물이 새고 한겨울에도 추위에 편적이 많다. 무엇보다 벽마다 외부인의 침입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게 가장 괴로웠다.》고 털어놓았다. ... 이번 섬마을교사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녀교사는 섬지역 학교에 발령을 내지 않겠다.》는 뺨질식처방을 내놓았다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현재 초등학교는 초임교사의 77%, 중학교는 68.6%가 녀성이라는 사실을 외면했다는 비난과 함께 남교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 (남조선잡지 《주간동아》 2016년 6월 22일호에서 전재)

단편소설

불을 부르는 소리 (6)

글 오송심, 그림 김윤일

행복! 누구나 바라지 않는다. 하나 쉬이 이룰 수 없어 황용 장미꽃상상으로 치부한다. 하다면 허황한 꿈같이 여겨왔던 그 행복이 지금 나에게로 오고있는지 아닌가. 고개를 접고 감격에 젖어 묵묵히 서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열기로 번득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터졌다. 싸구려소리와 가격을 흥정하는 실랑이소리들, 불신과 회의와 반신반의가 가득 사라진 시장안에 희망과 기대의 봄물결이 출렁이였다. 사르르 마음을 녹이는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던 림하영은 박수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잠시 잊었던 습관적인 불신과 의심이 머리를 추켜들었다. 박수를 칠가 말 가 망설이는 림하영을 뜻밖의 탄성이 불리세웠다. 《이게 누구요? 하영씨 아니에요?》 후보자가 알은체 반색하며 다가왔다. 《반갑네요. 화면에서

랑 낮았어요. 하영씨 팬들이 굉장하다죠? 요즘 화보도 꽤 떠들썩하던데요.》 떨떠름해서 그를 마주보던 림하영은 그제야 까닭을 알고 어설픔게 웃음을 내비쳤다. 그무렵 림하영의 이모저모를 시시콜콜 소개한 기사가 화보에 실려 대중의 야릇한 관심속에 너가수의 인기를 보태주고있었던것이다. 《하영씨의 노래나 연기도 멋져요. 하지만 그 보다는 보란듯이 일떠서 는 기개 참 마음에 들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스름없이 팔을 끼면서 남들이 들을세라 소곤소곤 가정사를 관심해주는 박근혜앞에서 림하영은 그리도 당당하던 자신을 잃고 몸가누이 어색해졌다. 《아들이 열너덧살이 라던것 같은데 아마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에 다녀요. 오늘 실력판정에서

2등을 했더니네요.》 평소애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던 림하영이었다. 헌데 방금전의 자신의 긴 대답에는 자랑기가 다분하다. 림하영은 절로 놀라움을 들었다. 《오- 그러니까 축하연준비를 위한 걸음이었네요.》 림하영은 뒤라 대꾸를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였다. 순간에 가슴이 찢어졌었다. 지금껏 쌓아온 열음벽이 스르르 녹아내리는것을 느꼈다. 아득한 시절애 싸늘하게 식어버린 인간애가 림하영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온천인양 보글보글 끓어올랐다. (이럴수가...) 꼭 죄었던 마음속 랑개가 남의 말 한마디에 이렇듯 쉽사리 풀어지고 리성을 앞지른 감정에 목이 메여오기는 난생처음 이였다. 현란한 조명, 각이한 목청들의 미칠듯 한 호응, 우뢰같은 박수갈채, 대서특필의 찬사... 얼핏 보면 더할나위 없

는 영광의 절정이고 멋들어진 삶인듯싶으나 그속엔 공허뿐이었다. 자신의 아픔을 남의 아픈 사연으로 위로받고싶은 사람들, 고된 삶이나 권력에 지쳐난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기분전환의 마당이기도 한 곳에서 림하영은 한갓 생동한 인형에 불과하였다. 실컷 속풀이를 하고난



뒤엔 누구 하나 림하영을 돌아다보려 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술좌석이나 마실방 같은데서 숨쉴수 있는 임부리들에 림하영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이렇게 저렇게 각색되는것이 전부였다. 무대우의 인생이 감수해야 할 숙명이랄까. 무릇 너인들은 리성보다 감성이 더 주도적인

것으로 하여 속썩은 고층이 류다르다. 그릇도 차면 넘친다고 너인네 작은 가슴이 비좁도록 들어찬 울분은 이러저러하게 흘러나오기마련이다. 하소연으로, 눈물로, 행악으로 제나름의 표현방식을 택하여 마음속 고충을 털고 다시 채워넣으며 힘에 부친 생을 지탱해가는 너인들이다. 허나 걸음걸음 다.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설움과 진정을 터놓을 길 없는 무정하고 랑후한 세계를 씩씩히 관망하는 것이 어느덧 습벽으로 굳어졌다. 처칠히 배반당하고 밝히운 한으로 마음의 울타리를 높직이 두른채 지금껏 아들을 내놓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살아온 림하영이었다. 가슴이 후터워났다. 박근혜의 《자상한 인정》이 그지없이 고마웠다. 누구도 모르는 내심까지 들려다보는 《헤안》에 림하영은 감동되었다. 불현듯 닥친 오아시스 마른 림하영의 속을 흠뻑 적시며 거침없이 흘러들었다. 《일전에 난 이런 글을 쓴적 있답니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 의지가 없다면 살 맛이 있나. 나약한 인간을 난 질색한답니다. 당하기만 하는게 너자 일가요? 하영씨 어머니 더 강하죠.》 박근혜는 나직한 음성으로 림하영을 고무하였다. 몽클하는 걱정에 림하영은 눈곱이 쩌었다. 선거전야라 바쁜 와중에도 이웃아주머니같은 친절로 하바닥인생들의

사정을 차근차근 헤아리고 친언니처럼 살뜰히 림하영의 명진 마음까지 다독여주고고도 박근혜는 그들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몇번이고 돌아서서 작별의 손짓을 보였다. 서운한 마음에 그를 배우고 싶던 림하영은 의아해졌다. 멀어져가던 박근혜가 웬일인지 급기야 발을 돌려 마주왔기때문이다. 온 얼굴에 활짝 퍼온 웃음으로 실눈이 된 박근혜가 림하영의 손에 가만히 뭔가 쥐어주었다. 순전화번호가 적힌 금빛의 명함장이였다. 《전화해요. 지기들한테만 주는 번호예요.》 박근혜는 한눈을 깜빡하였다. 《세상은 승자와 패자뿐인걸요. 승자에겐 죄를 묻지 않아요. 이겨야 현자랍니다. 수단과 방법이 따로 없죠. 화이팅!》 박근혜는 주먹을 번쩍들어올려보이고나서 자리를 떴다. 후보자의 명쾌한 행동에 현혹된 림하영은 그가 남긴 말을 음미해볼 생각이 전혀 하지 못하였다. 《화이팅!》 하는 묘한 여운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녀배우를 무아경에 잠기게 하였다.